

금융취약성 9분기째 상승... 3분기도 상승 흐름

가계신용 증가·주택가격 상승 영향
FVI, 장기 평균인 46.5와 같아져
금융불안지수, 19.5로 '주의단계'
'금리인상' 시차두고 FVI 낮출 듯

국내 금융시스템이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바탕으로 대체
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다만 중장
기 금융불균형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
수(FVI)는 9분기 연속 상승해 장기평균
에 도달했고,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22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
고서에 따르면 FVI는 2024년 1분기 37에서
올해 2분기 말 46.5까지 9분기 연속 올랐
다. 가계신용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를 끌어 올리면서 장기평균(46.5)과 같
은 수준에 도달했다. 금융불안지수(FSI)도
7월 19.3에서 8월 19.5로 소폭 올라 주의단
계(12 이상 24 미만)에 머물렀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설명회
에서 3분기 수치는 12월 보고서에서 다시



장정수 부총재보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지표로
는 2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
의 부동산대책, 추가 조정 과정에서의 레
버리지(차입) 축소는 추가 상승을 제약
할 것으로 봤다.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FSI를 높일 수 있지만 시차를 두고 FVI
와 금융불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신용은 2분기에 전분기보다 1.3%
증가한 2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88.1%에서 올해 1분기
85.3%로 낮아졌다. 장 부총재보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3% 인פק이고 명목 G
DP가 두 자릿수 증가한다는 전제에서 이
비율이 2분기 81%대, 연말 70% 중후반
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비율 하락은 부채 축소보다 명
목 GDP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 소득 개
선이 차주별로 고르게 나타나지 않은 데
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대
출 증가 압력도 남아 있다.

장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비율이 압제
수준이나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
더라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취약부분의 위험도 커졌다. 기업 연체율
은 비은행권과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일부 비은행권의 유동성비율도
낮아졌다. 한은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이 큰 비은행권의 차
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통화정
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해 불균형 축적 우려를 낮춰야 한
다"며 "금리 상승 과정의 금융불안은 금
융·재정정책을 통한 정책 공
조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연체차주 지속률 80% 은행권 부실 '경고등'

연체 중인 자영업자 차주 10명 중 8명
은 한 분기 뒤에도 연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자영업
자는 기존 연체의 장기화와 신규 연체 유
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12.71%까지 높아졌다.

22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
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지속률은 80.9%로 지난해 말 78.4%
보다 2.5%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1분
기에 연체했던 자영업자 차주의 80.9%가
2분기에도 연체를 지속했다는 의미다. 취
약자영업자의 연체지속률은 82.3%로 비
취약 차주(78.0%)보다 높았다.

새로 연체에 빠지는 취약차주도 늘었
다. 전분기 비연체 자영업자 가운데 2분기
연체로 전환된 비율은 전체적으로 0.90%
였다. 비취약차주의 연체진입률은 지난해
말 0.72%에서 0.60%로 떨어졌지만 취약
차주는 3.17%에서 3.60%로 상승했다.

한은, 2분기 자영업자대출 연체지속률
지난해 말 78.4% 보다 2.5%p 상승

한은은 취약차주가 상환 여건 악화 시
연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정상화에
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
했다.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98조5000
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6000억원 늘
었다. 전체 금융권 기업·가계대출 합계의
28.2%에 해당한다. 차주 수는 321만2000
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1인당
평균 대출은 3억4200만원으로 소폭 증가
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는 41만100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7000명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도 같은 기간 114조6000억원에서 119조
2000억원으로 약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1.99%로 지
난해 말 1.86%에서 상승해 장기평균인 1.
60%를 웃돌았다. 비은행권
연체율은 3.86%, 취약 자영
업자 연체율은 12.71%에 달
했다.

/김주형 기자



metro

기준금리 인상 충격... 가계·기업 이자 7조 늘어난다

가계 3.3조, 기업 3.6조 이자 부담
은행 연체율 15개월 뒤 가장크게 반응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p)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약 7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과
거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 가계·기업대출
연체율이 약 15개월 뒤 가장 크게 반응했
지만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은 9개월
전후에 충격이 집중돼, 금리 상승의 부담
이 약한 고리에 먼저 번질 수 있다는 분석
이다.

22일 한은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
를 각각 0.25%p 인상했다. 금리 인상은
차입 수요와 위험 선호를 낮춰 가계부채

와 주택가격 등 금융불균형을 완화하지
만 차주의 이자 부담과 금융기관의 신용
손실 위험을 높이는 양면성을 지닌다.
단기적으로 금융불안지수(FSI)를 높일
수 있지만 시차를 두고 금융취약성지수
(FVI)를 낮출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
이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설
명회에서 "기준금리 0.25%p를 기준으로
가계는 약 3조3000억원, 기업은 3조6000
억원 등 총 7조원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
난다"고 말했다.

다만 7조원은 금리 0.25%p 변화에 대
한 대략적인 시산이다. 이를 최근 누적 인
상 폭에 단순 적용해 실제 이자 부담이나
향후 연체율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설

명이다. 대출금리의 전가 속도와 경기,
차주의 상환능력, 정부 지원 등에 따라 결
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의 충격은 시차를 두고 나타
난다. 신규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와 지표
금리 상승을 빠르게 반영하지만 기존 대
출을 포함한 잔액 기준 금리는 금리 재산
정 시기 등에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 과
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 잔액 기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약 5개월 뒤,
은행 연체율은 약 15개월 뒤 가장 크게
반응했다.

취약부분은 평균보다 충격이 빨랐다.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은 기준금리 인상 약 9개월 전후에 가장
크게 반응했다. 이는 이번 7·8월 인상의

영향이 특정 시점에 그대로 재현된다는
예측이 아니라 2012년 1분기부터 올해 2
분기까지의 자료에서 확인된 과거 평균
적인 최대 반응 시차다.

금리 상승을 버틸 완충자산이 부족한
저소득 가구는 더 취약하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소득 하위
20% 가구 가운데 47.5%는 향후 1년 내
금리변동에 노출된 부채가 예·적금 등 이
자부 자산보다 많았다. 이들 가구의 처분
가능소득 대비 이자수지 비율은 -14.0%
였다. 이자비용이 이자수입보다 큰 만큼
금리가 오를수록 가처분소득
이 더 압박받을 수 있다는 의
미다.

/김주형 기자



metro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우주강국을 향한 도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과 기술과 산업이 연결되는 곳, 우주항공복합도시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